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05

2019.1.27
신년특집호

2019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
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신명기 22:4

오늘의 주요기사

- 2-3면 성서칼럼 돌부리
- 4-5면 신년특별새벽기도회 화보
- 6-7면 유유택청 교역자 좌담
- 8-9면 해외선교 소식
- 10-12면 창립30주년 특집 교육편
- 13면 향존직 은퇴식
- 14면 새로 오신 교역자 소개
- 15면 목회칼럼
- 16면 아가나들이, 알립니다

교회일정

- 1/27(주일) 신임서리집사교육 / 제직수련회
- 2/10(주일) 정기당회
- 2/13(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
- 2/22(금)~23(토) 겨자씨인도자수련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유유택청, 미래를 위한 첫걸음

2019년 1월 18일, 겨울 수련회로 바쁜 중에 짬을 내어 김화수 담임목사와 2019년의 중점 프로그램인 “유·유·청·청 리바이벌”을 담당할 전임 담당교역자들이 함께 모였다. “유·유·청·청 리바이벌”은 유치부 이하의 미취학아동을 포괄하는 ‘유아숲’, 초등학교 전 학년 부서를 포괄하는 ‘유소년숲’, 중고등학교와 재수생을 포함하는 ‘청소년숲’, 대학생과 청년을 포괄하는 ‘청년부’의 부흥을 위한 프로젝트로, 주님의교회 10년 사역 청사진의 첫걸음을 의미한다. 이 자리에 모인 전임 담당교역자들은 이미 각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들로, 향후 6년간 해당 부서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사역에 헌신하게 된다. > 특별좌담 기사 6면

신년특집 | 신년특별새벽기도회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5~7절)



2019년 새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년특별새벽기도회”가 1월 7일부터 12일까지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올해 교회 표어인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새벽기도회의 첫날은 “가정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둘째 날은 “약속된 말씀을 붙드는 가정”, 셋째 날은 “약속의 말씀으로 자녀 양육”, 넷째 날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과 가정”, 다섯째 날은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 여섯째 날은 “믿음의 자산을 상속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잠을 미처 깨지 못한 채, 부모님의 품에 안겨 나온 아기들과 손에 이끌려 나온 어린이들을 포함, 본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이 함께한 특별새벽기도회의 열기가 잠실별을 뜨겁게 달구었다. 김화수 담임목사는 특별새

벽기도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을 일일이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를 위한 교구별 계근작정게시판이 로비에 마련되어 교우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유아 숲에서는 7명, 아동 숲에서는 40명, 청소년 숲에서는 18명이 개근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관련 화보 4~5면

성서칼럼 돌부리

아간의 범죄(여호수아 7:1~26)

이번 호 성서칼럼 돌부리는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간의 범죄” 이야기를 다룬다. 그러나 형식상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하였다. 주님의교회 모든 교우와 마찬가지로 교역자들도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9시 전까지 교역자 큐티나눔 카톡방에 묵상 글을 올린다. 이번 호 돌부리에서는 필자와 존 슈나이더 목사(영

어목회 담당)가 이 카톡방에 올린 이틀 치 큐티를 그대로 수록한다(슈나이더 목사는 영어로 글을 쓰므로, 원문과 함께 필자의 번역을 병기한다). 이러한 구성을 택한 이유는, 비록 짧은 큐티에서지만, 두 사람 한 가지 주제를 상호 보완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바로 죄의 연대성. 첫 큐티에서 슈나이더 목사는 “아간의 범죄” 사

건에 드러난 죄의 구조적 차원을 언급한다. 그러나 둘째 날 큐티에서는 그러한 죄를 “연좌제”로 처벌하는 문제를 현대 그리스도인의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생각한다. 여기서 슈나이더 목사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성서의 많은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

다. 필자의 큐티 역시 “아간의 범죄”에 드러난 죄의 사회적 연대 책임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간의 큐티에서 계속 죄의 연대성에 관해 생각을 집중한다.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첨가하는 연좌제 언급 부분(여호수아 7:24~25)에 관한 분석은 성서를 탐독하는 열정적인 돌부리 독자들을 위한 보너스이다.

2019. 1. 11. 금요일 (여호수아 7:1~15)

개역개정 성경의 단락 제목은 “아간의 범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7:11)라고 말한다. 불합리한 연대 책임인가? 눈물겨운 공동체 의식인가?

그러나 내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죄는 본래 개별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다. 가령, 누군가 은밀하게 횡령을 하거나, 터무니없이 갑질을 하거나, 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모와 편승, 침묵의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게다가 범죄를 향한 욕망은 고립된 개인의 내면에서 발아하지 않는다. 그가 속해 있고 상호작용하는 사회가 그의 호흡 깊숙이 포자를 옮긴다.

아간의 마음 안에 재물에 대한 탐욕과 그것을 횡령할 의지를 불어넣은 것은 이스라엘이었다. 그 은밀한 범죄가 실행될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사회의 공모와 편승, 침묵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옆에서 “용기 있는” 아간을 치켜세우며 그 범죄의 산물을 나눌 수 있었던 동료와 패거리가 없었다면, 한 개인에 불과한 아간은 그럼 마음을 품을 수도, 그것을 감히 실행할 생각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두절미하고 범인을 특정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개역개정), 여호수아 7:11)

2019. 1. 11. Fri. (Joshua 7:1-15)

“But the Israelites broke faith”(7:1) is how the passage begins. The Israelites as a collective have violated the covenant with the Lord. But the verse goes on to single out just one man, Achan, as having taken things that were devoted for destruction.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를 저버렸다”(7:1)라는 말로 이 단락은 시작한다. 한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과 언약을 위반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이어 단 한 명을 지목하는데, 바로 아간이다. 그가 (파괴하도록) 온전하게 바쳐진 물건들을 가졌기 때문이다.

In this passage, the sin of one man affects the entire nation. Because of his sin, Israel is surprisingly defeated by a numerically inferior force. As Joshua struggles to reckon with this defeat, the Lord tells him that “Israel has sinned”(7:11). Israel has stolen. Israel has acted deceitfully. Not Achan, but Israel. Not one man, but the nation.

이 단락에서, 한 사람의 죄는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열세인 적에게 예상치 못하게 패한다. 이 패배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씩씩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7:11)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훔쳤다. 이스라엘이 속였다. 아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다.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민족이다.

This sense of shared responsibility for sin is mostly foreign to us. We tend to think of individual sins committed by individuals. This is a low understanding of the power of sin. More appreciation of the power of collective sin would help us to confront the systemic sins that plague our society and our world, from our desecration of the Earth to our collective indifference to poverty, particularly the elderly poor.

죄에 관한 이러한 연대 책임 의식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다. 우리는 보통 어떤 개인이 (개인 차원에서) 개별적 죄들을 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죄의 힘에 관한 소박한 인식이다. 집단적 차원에서 죄가 지닌 위력을 더 크게 인식해야 비로소 우리는 사회와 세상에 만연한 구조화된 죄들을 바로 직면할 수 있다. 우리가 자행하는 환경 파괴로부터 가난—특히 고령층이 겪는 가난—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무관심에 이르는 이 구조화된 죄들을 말이다.

모십니다

〈함글함글〉모니터 위원을 모십니다

〈함글함글〉에서는 새해를 맞아,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깊이 있게 수렴하기 위해서 모니터 위원을 모십니다. 평균 3주 간격으로 발행되는 〈함글함글〉을 꼼꼼히 읽으시고, 주위 여러분의 의견도 들으신 후, 약 3개월마다 모시는 다과 자리에서 여러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성함과 성별, 나이, 간단한 자기 소개를 적으셔서, ‘독자모니터위원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 2월 28일까지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글함글

2019. 1. 12. 토요일 (여호수아 7:16~26)

오늘 본문을 읽으며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한다. 회개와 처벌.
먼저, 회개. 번역된 문장만 놓고 보면 아간이 자기 죄를 “회개”한 것 같기도 하다. 순순히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전리품의 은닉처를 밝힌다. 그러나 말의 진실성은 단순히 문장 구조에 달렸지 않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관한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소집되고, 수차례에 걸친 제비뽑기가 진행될 동안 아간은 침묵하고 자백하지 않는다. 부정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고개를 숙인 채 범행 일체를 자백한다. 특이한 사례는 아니고, 대부분 자백 과정이 이렇다. 부정과 침묵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것이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 이제 자백과 인정만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판단할 때, 이러한 순순한 자백과 회개가 시작된다. 평범한 심리 과정이다.
그리고, 처벌. 아간의 이러한 회개와 자백은, 당연히, 처벌의 무게를 경감시킬 수 없었다. 현대인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연좌제이다. 어쩌서 아간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딸들을 비롯한 모든 가족(여호수아 7:24~25)까지도 돌로 치고 불사르는가? 아간의 가족은 무슨 죄가 있는가? 물론 고대사회의 연좌제에 관해서는 아무리 논리를 세워도 현대인에게에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들 나름의 논리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보통 참혹한 멸문의 연좌제는 대역죄의 경우에 시행되는데, 이는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거대한 죄를 한 개인만의 몫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의식도 한몫한다. 특히 가부장적 씨족, 부족 사회의 가족 공동체의 경우, 아간 같은 범죄는 집안 전체의 공모 없이 달성되기 힘들다.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든, 수동적으로 참여했든 함께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한, 가문은 그러한 범죄의 이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 간주한다. 게다가 누군가 그들에게 “아간의 가족은 무슨 죄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되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간 때문에 죽은 자들의 가족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아간과 그 집안을 처벌함으로써, 오직 그들만을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죄(7:11)를 털어버리려 하는 것인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아닌 측면도 있겠다. 만약 아간(과 그 가문)에만 모든 죄책을 전가하고 만다면, 아간에게 욕망을 불어넣고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조한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대기를 정화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처벌은 르네 지라르가 말하는 “희생양 제의”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하는 분위기는 최소한 직접적인 범죄자인 아간과 그 집안을 일벌 백계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보내는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누구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모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간의 처벌은 빌라도의 손 씻기와 같은 차원일 수는 없다. 꼬리 자르기나 책임자의 면피가 아니라, 한 공동체가 법과 정의를 분명하게 구획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생략 없이 진행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 있었다.

* 아간 가문의 연좌제(여호수아 7:24~25)에 관한 보충설명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간의 가문 전체가 연대 처형당하는 장면이 (문법적으로는) 다소 모호하게 서술되고 있다. 개역개정 번역의 24절에서는 아간의 가족이 함께 끌려가지만, 25절에서는 돌로 치는 대상을 단수로 번역함으로써, (문법적으로는) 아간 혼자만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개역개정이 번역 대본으로 삼고 있는 히브리어 성서 본문에서는 25절의 마지막 부분이 복수로 처리되어 있다; “그리

고 온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 그(아간)에게 투석했다. 그리고 그들(온 이스라엘)은 불로 그들(아간의 가족을 포함)을 불태웠다. 그리고 그들(온 이스라엘)은 돌들로 그들(아간의 가족을 포함)에게 투석했다.” (필자에 의한 히브리어 직역이다. “돌을 들어 투석하다, 불로 불태우다” 라는 식의 중복 표현은 히브리어 문장구조의 특징이다.) 이러한 어조를 살리기 위해 새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남은 가족” (새번역, 7:25)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가문 전체의 멸문지화를 분명하게 명시한다. 직역 전

2019. 1. 12. Sat. (Joshua 7:16–26)

If yesterday’s passage (Joshua 7:1–15) highlighted the positive aspects of collective guilt for sin (an emphasis on communal relationships and a greater appreciation of the power of sin, particularly systemic sin), today’s passage showcases its dark side. The stoning (and burning!) of an entire family is an abomination and utterly indefensible.

어제 본문(여호수아 7:1~15)은 죄에 대한 집단적 책임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즉, 공동체적 관계들과 죄(특히 구조적인 죄)가 지닌 위력에 관한 더욱 광범위한 인식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죄의 연대 책임이 동반할 수 있는 어두운 이면이 드러난다. 한 가문 전체를 돌로 쳐 죽이고 급기야 시체를 불태우기까지(!) 하는 처형 방식은 혐오스럽고, 어떤 말로도 변호할 수 없는 일이다.

Then what do we do with this passage (and so much of the book of Joshua, which is filled with God-ordained violence)? We read it through the lens of Jesus Christ, the Word of God made flesh. In the Gospel of John chapter 8, the scribes and Pharisees bring before Jesus a woman who has been caught in the act of committing adultery, the penalty for which was, as it was in Joshua 7, stoning. The religious leaders ask Jesus what they should do with the woman. Jesus tells them, “Let anyone among you who is without sin cast the first stone” (John 8:7).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폭력으로 가득한 여호수아서의 수많은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이러한 본문들을 읽는다.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데려온다. 이러한 죄의 처벌은, 여호수아 7장에서처럼, 돌로 치는 것이다. 종교지도자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께 묻는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한복음 8:7 중)

We should not be eager to throw stones, for we are all guilty. Fortunately, Jesus, the Word of God made flesh, has taken upon himself our guilt and suffered in his own flesh the consequences of our sin. He has shown us mercy so that we might be merciful.

우리는 돌 던지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시고 몸소 우리 죄의 결과들을 겪어내셨다. 그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 바라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통의 영어 번역본 중에서는 ESV가 히브리어 본문의 문법적 수를 가장 문자적으로 번역한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 그에게 투석했다. 그들은 그들을 불로 태우고, 또한 돌을 들어 그들에게 투석했다(And all Israel stoned him with stones. They burned them with fire and stoned them with stones).” (영문 번역은 필자의 것) 그러나 구약 성서 사본이 히브리어 본문(“맛소라본문”)만 있는 것은 아니다. 1세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애용하던 그리스어 본문(“칠십인역”)에는 아예 25절의 마지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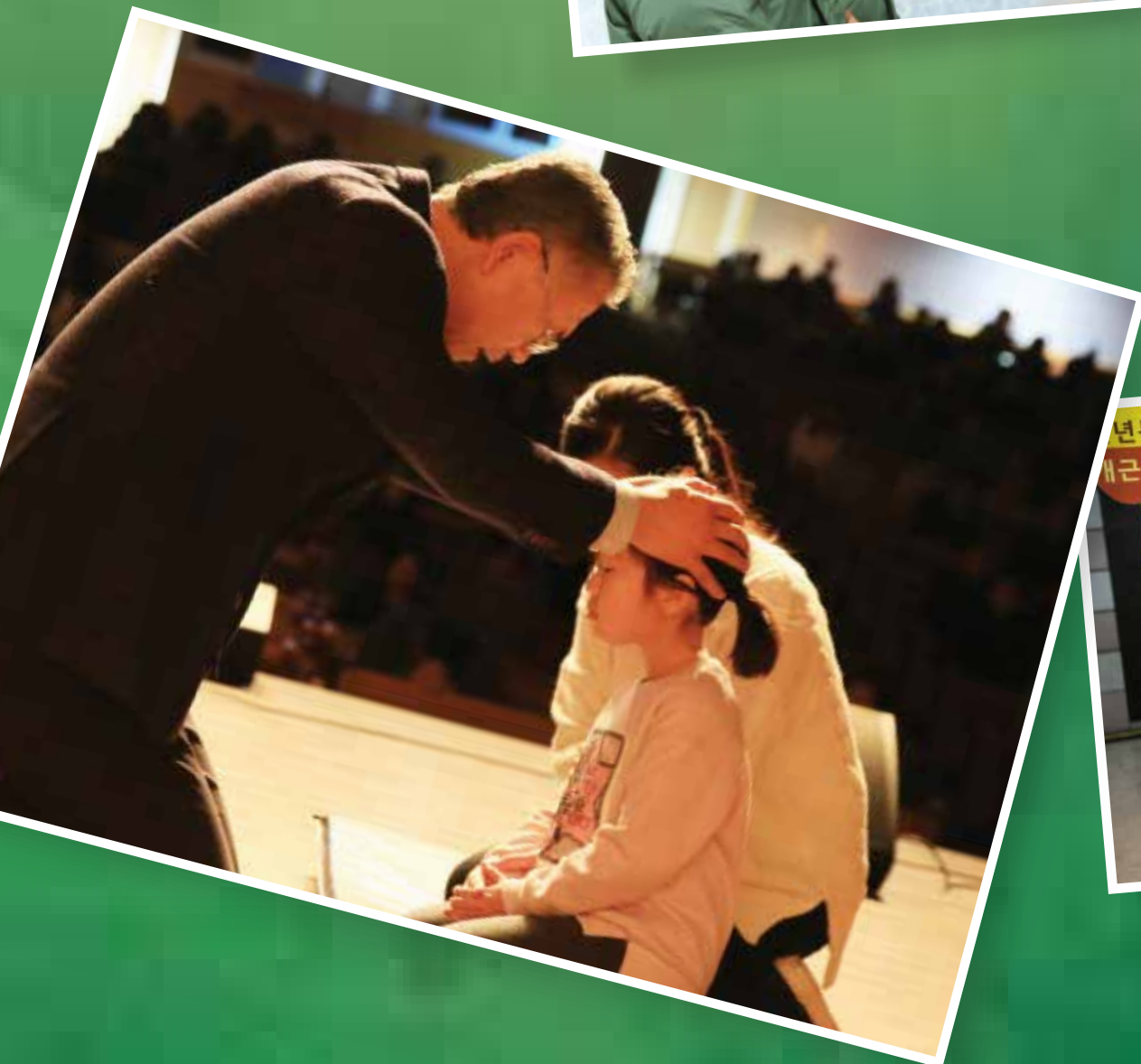
부분(“그리고 그들은 불로 그들을 불태웠다. 그리고 그들은 돌들로 그들에게 투석했다.”)이 빠져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어 본문 역시 24절에서 아간의 가족이 함께 아골 골짜기로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기에, 25절에서의 문법적 수와 상관없이 쉽게 연좌제를 유추할 수 있다. 요는, 아간의 가문 전체가 연좌제로 인해 멸문지화를 당한 것이 히브리어의 문법적 표현에서는 명백하게 나타나며, 문법과 상관없이 문맥상으로 추론해도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는 점이다.
손경민 전도사

신년특집 | 신년특집새벽기도회

새벽을 깨운 가정, 한 해를 열다

2019년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는 신년맞이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렸다. 엄마의 품에 안겨 졸음을 못 이기는 아기부터 무릎을 꼬집으며 강단을 향해 눈에 힘을 주는 어린이, 방학을 맞아 모처럼 늦잠을 잘 기회 대신 새벽기도회를 찾은 청소년과 부모들까지 본당을 가득 채운 이들의 열기가 새벽을 깨웠다. 짧고도 길었던 한 주간의 풍경을 화보로 꾸몄다.

함줄함울





2019 가정의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 6:5-7



신년특집 | 유유허청 교역자 좌담

30살 주님의교회, 참된 부모로 거듭나야

지난 1월 18일, 함줄함줄팀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유·유·청·청 리바이벌”의 전임 담임교역자로 초빙되거나 임명된 목회자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가졌다. 유치부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포괄하는 ‘유아숲’을 담당하는 이은미 전도사, 초등학교 전 학년 부서를 포괄하는 ‘유소년숲’을 맡은 문은영 목사, 중고등학교와 재수생을 포함하는 ‘청소년숲’을 담당하는 임경순 목사, 대학생과 청년을 포괄하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김영한 목사와 함께 한 이날 좌담은 비록 모두들 바쁜 일정을 쪼개어 시간을 맞추느라고 점심식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으나, 곧 유유허청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깊이와 열정이 담긴 토론으로 이어졌다.

함줄함줄

함줄함줄(이하 ‘함’) 올해 주님의교회 표어가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이고, 이 주제를 펼쳐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사역으로 “유·유·청·청 리바이벌”(이하 ‘유유허청’이라 함)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모신 네 분은 각 세대별 전담 담임교역자로 초빙되었거나 임명받으셔서 앞으로 6년간 중책을 맡게 되신 목회자들이십니다. 올해 어떤 각오와 소망으로 시작하시는지, 또 서로간에 어떤 협력과 조화를 이루게 되실지 여쭙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해당 분야에서 남다른 경험과 이론적 토대를 갖고 계셔서 어렵게 초빙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유유허청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와 내력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전도사(이하 ‘이’) 유아숲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25년 정도 한 우물을 파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연령대는 ‘인생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으로 이 시기에 많은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요. 제가 이 시기의 아이들을 지도한지 5~6년쯤 지나서, 아이들만을 지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부터 물론 최종적인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연계한 사역을 시작했지요. 사실 저는 교단에서는 유아 교육과 관련된 가정 사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중앙 강사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한 두 시간 동안에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가정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매일 성경을 읽는 말씀 읽기 훈련, 부모가 신앙의 주체가 되고 교사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 많은 경력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시고 계속 전도사로 계시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이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하지 않는 총신대 출신이어서 처음에는 안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몇 번의 안수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무산되면서, 하나님의 뜻인가보다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목회자를 은퇴하고 현장의 전문가로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집필, 강의에 전념할 생각이었습니다.

문은영 목사(이하 ‘문’) 청소년사역원 담당자로 와서 다양한 일을 맡다가 이번에 유소년숲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역에 있어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 시대를 지구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여러 용어로 묘사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를 많이 고민합니다. 이 시대는 다양한 영역들을 아이들이 알아야 하고, 그것을 통합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통합의 중심점을 신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만 갇힌 아이들이 아니라, 상상력, 창의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열린 아이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요.

특히 상상력이 신앙교육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상력의 영역은 인식, 공감, 비전의 상상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만나는 것, 공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려와 이타를 행하며 더 나아가 자연과도 공감을 하는 것,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 가지 상상력을 바탕으로 교육하려고 합니다.

이 상상력을 이미지화하면 3H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 머리(Head), 가슴(Heart), 손(Hand)을 뜻합니다. 머리에

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으로 신앙이 내려갈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게 소망입니다. 특히 배운 것을 실천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려고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위해서는 영성 활동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관계의 문제를 포함한 아이들의 여러 고민들을 신앙뿐 아니라 상담의 차원에서도 풀어보려 합니다.

임경순 목사(이하 ‘임’) 사실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지만,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다 보니 교회 안에 있게 되었고, 청소년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성장기에는 소외와 배제와 차별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소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삶을 회복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롭게 태어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재학 중에 장애인 공동체를 섬겼으며, 졸업 후에는 부천의 작은 상가교회 청소년부 사역자로 봉직된 가정, 절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자고 먹고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십대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에는 2006년에 와서 2010년까지 중등부를 섬겼습니다. 이후에는 선교단체에서 청소년, 청년 상담사역을 약 5년간 감당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나가는, 더디 가지만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곁에서 이 길을 가려 합니다.

김영한 목사(이하 ‘김’) 저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신학교수가 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히브리어, 독일어, 라틴어, 영어를 공부하고, 유학을 가서는 아람어와 같은 고대근동어까지 공부했습니다. 귀국해서는 대구의 어느 교회에서 영어사역을 했었습니다. 풍요 속

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보살피는 중요한 사역을 맡게 되어 기대가 큼니다.

함 주님의교회에 오셔서 4개월 정도 되셨는데, 느낌은 어떠신지요?

김 우리 청년들은 심성도 착하고 다양한 재능도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고,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 같습니다. 청년 서로간의 비교보다도, 가정 안에서의 비교 즉 부모와 형제와의 비교들이 청년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청년부가 역시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모두 웃음). 청년들이 곧 부모가 될 텐데,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도 역시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임 제가 십년 전에 주님의교회에 있을 때에는 중고등부에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었습니다. 다양한 성향과 처지의 친구들이 섞여서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러나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텐데, 겉으로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들만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하지만 문제도 다 없어진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억눌린 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를 마주할 여유를 주기 보다는, 부모님들이 주도권을 쥐고 해결하려는 게 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김 청년도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학과 영어는 잘하지만,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야 할 때 어려워 합니다. 매뉴얼이 없으면 창조적인 자발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박탈감을 느끼고, 부모 형제에게 늘 눌러있는 느낌입니다.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느라 행동하기 어려워하고, 손익 계산에 익숙합니다. 요는, 능동성과 주체성이 모자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청소년 층 가운데 신앙을 갖고 있는 비율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정말 위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숲_이은미 전도사 유소년숲_문은영 목사 청소년숲_임경순 목사 청년부_김영한 목사

함 이런 사회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압박하는 부모의 신앙의 방식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을 때, 가정에서 신앙이 전승되더라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이 그래서 유아교육이 더 중요하나다(모두 웃음). 유아들은 모두 부모들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유아들이 나오려면 부모들도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숲 만나만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서로 나누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사소한 것에서라도 찾아서 서로 나누는 것이지요. 예컨대 출근길에 아빠가 지하철을 놓치지 않은 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아이랑 나누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젊은 부모들이 성경과 친해지게 되고, 신앙이 깊어지게 됩니다. 부모를 깨우는 일, 그 점에서 아마 인정을 받아서 제가 주님의교회에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젊은 부모들부터 교육하는 것이지요. 미취학 아동들과 부모들에게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 후 유소년으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많은 일을 하시려는 가운데, 혹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김 저는 청년 사역자로 오래 일을 해왔고, 책도 쓰며 강의도 하곤 하는데, 한국 교회는 자신의 자식을 키워야 하는데,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요즘 가정에서는 대개 아이들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아마 수입의 60~70%를 자녀에게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구 구조 자체가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교회의 구성원도 대개 비

슷합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자원은 중장년층에게 집중되고, 정작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유유청청에게는 관심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모두 공감)

함 우리교회는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 가정과 교회학교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또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들을 모셔 “유유청청”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실 텐데요, 우리가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김 지금 청소년 층 가운데 신앙을 갖고 있는 비율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정말 위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대학가의 복음화율이 3.7%라고 합니다. 지방은 3%이고요. 젊은이 백 명 가운데 3명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 3명 가운데 교회에서 열성적으로 일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은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과 청소년들에게는 재정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할 텐데, 사실 교회 내부의 청소년들에게는 인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재정이 넉넉한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현실은 알지만, 그래도 청소년과 청년,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함 사실 지난번 함글함글 독자 좌담회 때 다소 충격적인 얘기도 있었습다. 어떤 청년 성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장년이 되어서도 이 교회를 꼭 다녀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더군요.

김 지금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을 이해하고, 자신들에게 물심 양면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 곳을 모교회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유유청청의 숫자가 십 년 이십 년 뒤의 주님의교회 숫자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다면, 물론 현실은 여러 이유로 인해 쉽지 않습니다만,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절대로 아끼면 안 됩니다.

임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 복음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복음은 다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실천이고 관심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저는 공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교회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이 공간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울고 웃고 싸우고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어우러지며 성장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십 년 전 주님의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끝에 지하에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십 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 그러한 전용 공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교회의 여러 사역팀이 그것을 나누어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건 청소년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교회 현실을 잘 알기에 저도 이 문제에 관해 처음 말을 꺼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소년에게 공간은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장년 모임과 달리 미리 시간을 정해서 장소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제나 올 수 있는 빈 장소가 먼저 있어야, 우연히 한두 번 들르고, 그러다 자기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무언가 함께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집처럼 여기며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함 이 문제는 사실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임 저도 우리교회 현실을 알기에 부처 차원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다. 교육부서에서 자주 얘기하면 부처이기주의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늘 이점이 아쉽고 안타깝기는 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한번 털어놓습니다.(웃음) 중요

하지 않은 사역이 없지만, 그럼에도 교회 전체가 합심하여 “정책적 판단”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투자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평소 대하는 방식, 말투에서도 그런 획기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이를 키우는 마을이어야 합니다.

함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기억납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는 5~6년만 지나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5~6년 뒤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공간 문제는 늘 큰 과제였습니다. 교회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를 위해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은 교사 한 분 모시기도 쉽지 않은데,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 저는 교회의 교역자나 교인들이 사역이나 일에 집중하기 보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김 주님의교회도 이제 30주년 맞았고 서른 살이 되었으니,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평적인 확장은 이제 멈추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원과 공간을 만들어 키우는 교회가 되도록 눈을 뜨고, 귀를 열으면 좋겠습니다.

함 주님의교회 구성원중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습니다. 3년 전 <함글함글>에 수록한 김희권 목사님의 특별기고에서 “주님의교회가 난민들의 집합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구성원들 모두 손님이 아니라 부모가 되려는 자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외선교소식 | 필리핀

앙겔레스의 육개장 사장님이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필리핀 천사들의 도시, 앙겔레스(Angelos)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성훈 이경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의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곳으로 넘어 온지 벌써 3년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길지 않은 3년의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큰아들 유태욱은 20살의 청년이 되었고, 마냥아이 같았던 둘째 아들 유형욱은 벌써 저만큼 키가 자라고,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도 처음해 보는 비즈니스 미션(B.A.M-Business As Mission)을 3년이란 훈련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아 규모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회만 했던 저로서 업장을 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앙겔레스 지역에서 육개장 사장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후배 선교사가 “목사님과 사장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냥 목장님으로 하면 안될까요?”라고 웃으며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12명의 직원과 함께하고 일하고 있고, 이들도 저희 가정이 선교사 가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파송교회인 경주제일교회 의료선교팀이 방문하였는데, 저희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동역해 주었습니다.

이들도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와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하는지를 알고 잘 따라 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직원들은 1차적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매주 직원들과 성경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협력하는 필리핀 교회 또는 선교 개척지에 방문하여 함께 선교에 동역할 것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아시다시피 두 아들 모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가정입니다. 이곳으로 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들자면 두 아들의 돌봄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필리핀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편견과 어색한 시선보다는, 웃어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반응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매주 3,4차례 필리핀 특수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과 유사한 특수교육인데, 아이들도 잘 따라주고 있고 재미있어합니다. 한 가지는 큰아들 태욱이의 신진대사 문제 때문인지 몸이 비대해지고 조금씩 틀어지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



다. 조만간 아침에 제가 태욱이와 인근 스포츠 센터에 가서 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끝으로 제가 목회자로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성도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크게 깨닫는 것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무척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명이고 사역이기에 사람의 지식과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선교지처럼 교회의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천사들의 도시에서 유성훈 이경

미니 인터뷰 | 새로 사무장 책임 맡은 정상철 안수집사

하나님의 일에는 정년이 없지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분, 교회 어디에선가 굵은일이 있을 때면 단발머리를 날리면서 나타나 숨씨있게 풀어내는 분, 정상철 안수집사. 그이가 올해부터 교회 행정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장의 중책을 맡았다. 쏟아지는 현안들에 둘러싸여 숨쉴 틈조차 없어 보이는 그이를 주일 오후 늦은 시간에 기습 인터뷰했다.

어떤 연유로 사무장을 맡게 되셨는지?

사무장은 교회 행정의 구심점이어서 온갖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박봉이어서 또 쉽게 적합한 분을 구하기도 어려운 자리입니다. 공무원 은퇴한 지 2년, 이제는 쉬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강권에 쫓겨,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정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감당하기로 했지요. 아마

도 저의 30년 공무원 경력으로 얻은 많은 경험도 교회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를 자르셨네요. (웃음)

원래 머리를 자르라고 한다면 안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 한 후, 제 머리 모양을 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정리하면 좋겠다는 권면이 있어, 마지못해 좀 다듬었습니다. (같이 웃음)

사무장으로서 마음에 품은 포부는?

이제 2주간밖에 되지 않았고, 예산 결산 등 급한 현안들이 있어 전체적인 파악이 아직은 되지 않았습디만, 교회 행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기쁨을 누리며 일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교인 여러분들께서도 간사님들을 사역의

동역자로서 각자 고유의 담당 영역이 있는 분들을 이해하시고, 깊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워낙 행정의 달인이어서 간사님들이 어렵게 느끼시지 않을까요?

공무원의 관점으로는 모두가 일인데, 교회 일을 일로 보면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 일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발견하는 데 뜻을 두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간사님들도 제 뜻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점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학원의 주인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학원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에 와 있으며, 이 공간은 교회이기 이전에 학교



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정신학교의 일과와 행사에 교회가 지장을 주는 일은 삼가야지요. 청소년사역은 정관에도 수록되어 있고, 우리 교회의 창립정신과도 이어집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짬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협력하여 이루어낸 하나님의 선

12년전 사업 지를 베트남으로 옮기며 우리의 신앙의 요람인 주님의교회를 떠나 베트남사람들과 삶을 나누며 살 아오는 동안 우리 교우들의 기도의 빛을 지고 있었다.

그 주님의교회의 의료선교 일정이 나 짱 지역, 12월로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마침 우리의 선교지인 깜란과 가까웠다. 10년 만에 주님의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이기에 가슴이 뛰었다.

우리 기도했다.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 한 사람이 치료받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고 간절히 기도했다.

11월 10일과 12월 2일, 환자파악

깜란 지역의 미자립 교회와 소수민족 교회를 방문하여 환자 36명을 확인하였다.

12월 21일, 사전진료

사전진료를 위해 깜란에서 칸호아 병원으로 환자들 36명을 모시고 갔다. 나이 드신 어머니를 고쳐보겠다고 아들, 며느리가 모두 온 가정, 어린이들, 눈이 안 보이는 소수민족 아저씨, 저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한국의 의료선교팀에 있는 민박사님에게 소개받은, 베트남 칸호와 국립 병원에 근무하는 티박사님과 연락하여 먼저 36명의 환자들의 차트를 만들고, 기초검사를 하였다. 오후에는 각 사람의 질병에 따라 환자들은 불편 없이 진료를 받았다. 진료 후 중증 환자와 경증환자들로 분류되었다. 중한 환자들은 26일 도착하는 주님의 교회 의사들의 확인을 받기로 했다.



그 사이 주님의교회의 지역민 집사님이 한국에서 와서 합류하였다. 정말 힘이 되었다.

12월 26일, 의료선교 첫째 날

주님의교회 서준규 장로님과 박일영 집사님이 칸호아 국립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환자들은 한국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는다고 무척 기뻐했다.

20년 전부터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해 잇몸 전체에 고름이 가득했던 짠 티 응이 할머니, 본인이 당뇨인지도 모르고 피부병인 줄로 알고 있었던 짜옹 락 할아버지는 두 눈이 백내장이 되어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프고 힘들어 하는 시어머니 짠 티 응이 할머니를 모시고 온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이리저리 쓰다듬고 보듬었다. 그 며느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계속 고맙다 하며 시어머니를 고쳐 달라는 간절함을 눈빛으로 전했다. 환자들은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다.

12월 27일, 의료선교 둘째 날

다시 환자들이 치료 받기 위해 병원으로 현지의 타오 목사님, 호아 목사님과 함께 왔다. 수술을 받지 않겠으며 목 뒤에 혹이 난 분과 위장염인 듯한 소수민족교회 전도사는 오지 않았다. 치료를 해 주겠다는데도, 병원에 오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수술이 무섭다고 오지 않았단다.

당뇨로 두 눈이 백내장이 되어 시력이 희미한 짜옹 락 할아버지는 한쪽 눈만이라도 수술해 주면 안 되겠냐며 간절히 간절히 부탁하셨다. 꼭 보겠다는 믿음과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두 눈 모두를 수술하기로 결정되었다.

의사 선생님들의 진찰 후 회의를 거쳐 한 분 한 분 치료가 시작되었다. 먼저 치과 치료가 시작되었다. 잇몸 전체가 고름이 잡힌 짠 티 응이 할머니는 아래위 잇몸을 뚫고 발치를 하였고, 또 한 분도 발치를 하셨다. 그분은 발치 후 약값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분은 자기 몸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며 자신의 약값을 부담하셨다.

갑상선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정밀 검사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수술을 하시러 수술실로 가셨다.



12월 28일, 의료선교 셋째 날

갑상선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검사 결과를 가지고 회의하신 후 약을 먹어서 고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회의 후 의사 선생님들은 전날 수술환자를 회진하고, 또 다른 수술에 들어가셨다.

소수민족이 국립병원에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주님은 놀린 자들을 국립병원에 들어오게 하였고, 그들을 치료하셨다. 참으로 주님은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

특별대우를 받으며 신속히 검사하고 치료받는 그들을 베트남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12월 29일 의료선교 넷째 날

병원에 올 수 없었던 중증환자들을 방문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양쪽 정강이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하여 철심을 뽑아내고 외부에서 철 구조물로 누르고 있어 움직일 수 없는 환자, 심장판막증 환자와 중증 척추협착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방문하여 일일이 기도하며 치료방법을 찾아 주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 마지막 방문지에서 심장판막증 환자에게 베트남인 민박사님을 통해 치료할 길을 알려 주셨다 '빈막프로그램'이었다. 마침 빈막 병원은 우리

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수술한 후에 우리가 돌봐 줄 수 있는 여건을 주님은 예비하고 계셨다.

사업을 정리하며 십일조로 마련한 교회부지 망고밭에 들러 잠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 보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선교. 병원과 협력하는 의료선교는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신속한 검사와 치료와 처치, 수술을 하게 되었다.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던 소수민족, 가난하고 놀린 자들이 이번 선교로 인해 병원에 올 수 있었고, 치료받고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소원하고 주님께 기도했던 일들이 바로 이번 선교로 이루어졌다. 병원비를 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는 이번 선교를 통해 치료하고, 수술하고, 약을 주어 나음받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우리와 10년을 함께한 호아 목사님과 깜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타오 목사님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한 시간들이었다. 4일 내내 태풍 속에서 오는 비를 뚫고 함께해 준 현지 사역자들, 주님의 교회의 의료선교팀에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사회주의 땅인 베트남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사61:1)

베트남에서 감사와 함께 이진원, 박서연 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기획 : 함줄함줄 지상토론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⑤ 특별기고

교육, 그리스도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성경적 진로교육: 자녀의 진로 이해와 부모의 역할 / 정은진 소장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그 다섯 번째 글은 정은진 소장, 박상진 교수 두 분의 기고입니다.

발제 순서

1. 한국사회,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교회가 사회와 함께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창립 후 30년간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2. 소통_교회의 언어는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에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용어와 일상어와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사회와 소통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3. 정치_민주주의와 기독교는 동행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아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해 봅니다.

4. 경제_이 시대의 경제구조를 교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사회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경제의 주체이자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5. 교육_그리스도인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급변하는 이 사회의 다양한 속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6. 가치_세상의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출몰하고 충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다양한 가치들을 바라보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7. 환경_그리스도인에게 자연은 무엇인가
자연 보호와 개발의 문제, 원전과 에너지 문제, 생명권과 동물권 등,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자연에 대해 성찰해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성경적인 교육’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이와 QT와 암송을 함께 하는 장면, 잠자리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장면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런 훈련들은 아이가 자라는 동안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훈련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참아주시니 하나님은 더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며 훈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더 믿을 수 있는 분이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성경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실수합니다.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쳤던 한 구절을 꼽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부모인 우리의 인생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는다면 불안 때문에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일은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 불안이 들어오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하는데요. 불안하면 아이의 전인적인 성장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취에만 집중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부모님들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이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유튜브, 요리사, 의사 등의 직업명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지금 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꿈을 빨리 정해서 변하지 말고 한 길을 가라는 부모나 사회의 압력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의 자기 이해에 기반한 꿈이 성인이 되도록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꿈을 찾는 과정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성장하는 과정이고,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모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 질문에 살짝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아이가 잘 사는 것’을 떠올리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이는 부모의 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문장형의 대답을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대답은 소명이라는 주제와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고유한 길, 혹은 나의 큰 즐거움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정의되곤 합니다. 부모의 삶이 소명의 길로 향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자라면서 더욱 뚜렷하게 그 삶을 보게 됩니다. 물론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명자로 살고 있는 부모의 삶과 고민을 아이들에게 나눌 때, 아이들은 함께 기도하게 되고 결국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진로교육의 시작이자 믿음이 전수되는 길이며, 아이들이 독립하고 난 후에도 동역자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로서 아이들의 진로 결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진로 결정에 고려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사회의 변화입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가고자 하는 길이 10년, 혹은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를 함께 예



정은진 소장은 진로와소명연구소 소장이자, 상담사이며 코치이다. 교육학과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19년 동안 학생, 직장인, 학부모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들어왔고, 30-40대 직장인 커리어에 대한 고민들을 (직장인 소명학교) 라는 소그룹 코칭을 통해 깊이 있게 다루어 오고 있다. 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여, 자녀 양육의 주제로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강이 굵이 굵이 흐르며 가는 곳마다 꽃을 피우듯, 직선이 아닌 곡선 인생을 응원한다.

측하고 찾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의 피드백, 진단과 정확한 해석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뒷 부분에서 다시 다루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능력입니다.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으므로, 일생을 걸쳐 여러 번의 진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잘 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게 되는데요. 결정을 잘 하려면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첫 결정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죠. “너는 공부만 해라. 나머지는 부모가 다 준비해 줄게”라는 태도로 아이들에게 다가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아이에게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에서
교육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 그러나 모든 경험을 다 하게 해줄 수도 없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 설령 그렇게 해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말 아이에게 좋은 일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저도 네 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돈과 에너지, 시간적인 한계에 많이 부딪치게 되는데요. 고민 가운데서 발견한 경험 제공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험은 아이 주도적이어야 한다.

경험을 부모가 세팅하고 “이것이 네게 좋을 거야”, “하나라도 배우는 것이 있겠지” 하며 아이를 밀어 넣는 경험보다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확장하는 형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의 경험을 하면서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물을 내는 형태보다는 부모가 보고 싶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우선권을 줍시다. 그 과정 중에 배우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둘째, 경험과 해석이 같이 가면 좋다.

어떠한 경험이 내 것이 되려면 경험이 내 안에서 해석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 또는 다른 성인과 이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배웠고 깨달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미숙할 수 있으나, 부모의 나눔을

통해 경험의 해석 과정을 모델링할 수 있고, 또한 부모가 자신을 관찰해주는 정보를 통해 자신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좌절 혹은 비동시적 경험도 중요한 경험이다.

다중지능의 창시자이기도 한 하워드 가드너의 생산적 비동시성 (Fruitful Asynchrony)의 개념은 제게 가뭄에 단비 같은 시원함을 가져다 주는데요. 비동시성이란 다른 사람과 같이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면 어쩐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옆집이 자녀 교육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남들이 많이 사는 제품을 사면서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비동시성이 존재합니다. 누구도 같은 삶의 조건에서 살지 않고, 각자의 한계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에게는 비동시성이 발목을 잡는 좌절로, 어떤 이에게는 비동시성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가드너는 그의 책 <비범성의 발견>에서 자신에게 생긴 비동시성을 개발해서 그것을 전망 있는 문제나 분야와 연결시킴으로써 좌절을 또 다른 성취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자신

의 경험을 자기 발전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성찰의 능력이 필요하며, 또한 적당한 수준의 비동시성이 존재할 때 개인은 더 큰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른 책 <통찰과 포용>에서는 영국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 중 60퍼센트가 부모 중 한 사람을 여의었는데, 특히 아버지를 잃은 경우가 많았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부모의 슬하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행동과 태도를 본받으며 사회성을 익히는 반면, 일찍이 부모 중 한 사람을 잃은 아이들은 사회성이나 도덕성 면에서 자신의 규율이나 행동 양식을 스스로 규정해야 한다는 자극이나 압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습관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가는데 유리한 자질이 되는 것 같다고 가드너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좌절이 100 퍼센트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인생에서 한 번도 좌절해 보지 않은 사람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른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괴물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며, 언젠가는 만나게 될 본인의 좌절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남 탓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고민

해야 할 지점은 여기입니다.

우리가정의, 우리 아이의 비동시성은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여 성취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좌절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도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엄마도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지. 더 좋은 차도 타 보고 싶고.

그래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관심을 가져 불평 속에 살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을 힘을 합쳐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보자!”

넷째,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제일 잘 아신다는 것을 믿자.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경험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당연하지만,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에서 이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께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경험들이 무엇인지 아시며, 그 경험들을 가장 필요한 때에 아이에게 제공하실 것입니다.

정은진 소장 / 진로와소명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기획 : 함글함글 지상토론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⑤ 특별기고

교육, 그리스도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 키우기

최근 ‘SKY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화제이다. 대학병원의 의사들이나 로스쿨 교수 같은 전문인들만이 모여 사는 SKY 캐슬에서 벌어지는 일그러진 자녀교육 이야기이다.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수억 원의 돈을 들여 입시 코드를 자녀에게 붙여주는가 하면, 자녀를 어떻게 하든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려

는 부모의 욕망이 긴장감 있게 표현되고 있다. 과연 이 드라마가 사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나치게 과장이 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어도 70%는 현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자녀교육의 욕망에 대한 묘사만큼은 그 깊이

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부모의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자녀와 가정을 파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부모들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인 부모는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자

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더욱이 교회는 이런 교육현상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며 어떻게 교회교육에 임해야 하는가?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부모’와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가 자녀교육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물론 교회 다니는 부모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와

한국 교육은 ‘옆집 아줌마’가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은
세속적인 자녀교육과 달라야 한다.

는 그 모습에서 차이가 있다. 교회를 다니는 부모는 교회를 다닌다는 점에서 다르고, 호칭도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님 등으로 불리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자녀교육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있어서는, 교회 다니는 부모를 둔 경우와 교회 나가지 않는 부모를 둔 경우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녀교육은 동일하게 세속적이기 때문이다. 단지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하다. 첫 번째 거듭남은 부모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한데 자녀교육이 거듭나야 한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번째 거듭남까지 일어난 그리스도인 부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오늘날 다음세대 신앙의 대 잇기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운동이 제2의 거듭남 운동이다. 자녀교육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비로소 기독교교육은 시작된다.

사실 부모는 자녀의 소유권자가 아니다. 자녀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하나님이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청지기로서 세우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맡기셨다. 청지기로서의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욕망대로 키우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녀를 보내신 목적과 소명대로 키워야 한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진정한 부모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시면서 자녀교육의 매뉴얼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성경에는 자녀교육의 원리만이 기

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인물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지에 종속되어 있다. 한국 교육은 ‘옆집 아줌마’가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은 세속적인 자녀교육과 달라야 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이 구절을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 세상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은 세상의 자녀교육과 달리 하나님의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왜 하나님의 교육을 따르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교육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것임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대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경쟁에서 뒤쳐져서 낙오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불안해한다. 결국, 부모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히11:1)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진정 자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부모들이 믿고 있는 바이다. 우리는 무엇을 자녀교육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부모가 추구하는 자녀 인간상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진정한 자녀교육의 성공은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 당장 자녀의 모

의고사 점수가 고득점인지, 명문대학에 입학했는지, 일류기업에 취직했는지 등은 어느 기간동안 기쁨과 보람을 주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자녀교육의 성공은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교육’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자녀교육도 성공적인 자녀교육일 수 없다.

쉐마의 말씀으로 알려진 신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교육을 맡기신 것을 보여준다. 부모가 자녀교육의 주체다. 부모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교회 학교에 보낸다. 더욱이 평준화제도 이후에는 학교마저 배정이 되니 부모는 더 수동적, 피동적인 존재가 되었다. 물론 홈스쿨링을 하듯이 부모가 모든 교과목을 가르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하더라도 교육의 주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여야 하고, 학교나 교회학교에서 자녀를 올바른 가치관대로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 교회학교의 위기도 바로 부모의 자녀 신앙교육 부재 또는 약화에 있다.

필자가 최근에 수행한 연구가 ‘교회학교 위기 유발요인 분석 연구’이다. 교회학교 학생수가 격감하고 신앙적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학교의 위기에는 무엇인가 요인이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요인들을 열거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더니 교회학교 위기 유발 요인 1위가 ‘부모요인’이었고, 2위가 ‘학업요인’이었다. 3위는 ‘한국



박상진 교수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에 재직중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대학원에서 신학과 기독교교육학을 공부하였고, 미국 버지니아 유니온신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행동과학연구소 등에서 교육을 연구했고, 한국기독교사회대표 간사로 활동했으며, 좋은 교사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산파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 공동대표로 섬기면서, 오늘날의 교육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과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회 신뢰도’였고, ‘교회학교 교사요인’이 4위를 차지하였다. 1위와 2위를 합하여 설명한다면,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교회학교 부흥과 침체를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교회 다니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세속적인 학업관을 지니고 주일 아침에도 자녀를 학원에 보낸다면 그 교회학교는 침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회학교의 위기 극복 방안은 분명하다. 부모의 자녀교육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부모의 자녀교육 성공의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부모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중요한데 학업 문제까지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기독교학부모 교육이 요청된다. 우리는 과연 ‘교회 다니는 부모’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부모’인가? 우리 모든 부모들이 제2의 거듭남, 자녀교육의 거듭남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소망한다.

박상진 교수 /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회 소식 | 항존직 은퇴식

오랜 섬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30일 3부예배에는 임기를 마친 항존직 은퇴식이 거행되었다. 강진식·노봉옥·정종국 장로(3명), 강응순·김수철·김진수·노대홍·송행근·왕승근·윤희육·이문채·이재현·이정식·이종석·전건호·최종현 안수집사(13명), 강선희·권승남·길금옥·김라마·김영아·김영조·김영희·윤영숙·장근희·최인실·한규연·한

정신 권사(12명)가 이날 은퇴식을 맞아 오래 감당했던 공식적인 직분의 책임을 마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은퇴식에 참석한 교인들은 오랜 사역기간 동안 낮은 곳에서 교회를 섬긴 은퇴자들을 향해 수고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낮은 곳에서의 섬김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로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함글함글**

새 사역부서 소개 | 예배찬양준비팀

찬양의 그늘에서 섬기는 사역



오케스트라단이나 합창단 등에는 실제 보여지는 연주 외에 이를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준비과정이다. 그래서 각 기성 오케스트라단에는 별도로 단무팀을 두고 있는데, 주님의교회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예배찬양준비팀'이다.

2015년도부터 3부 예배 때에는 살롬찬양대와 주오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하고 있다. 주오오케스트라 대원은 평균 23명이며, 대원들은 각자의 악기가 있기 때문에 연주를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예배찬양준비팀은 3부 예배 시작 전후에 의자 23개와 보면대 23개, 대형 피아노를 옮기고 지휘석과 예배의자를 재배치하는 등 예배 준비를 담당하는 사역팀이다.

2부 예배가 끝나면 연세가 지긋한 두 분이 보면대를 가득 실은 카트를 끌고 나타난다. 강호구 집사(77세)는 2012년 9월 파월장병 고엽제 후유증으로 폐암 수술을 받은 직후에 주님의교회 교인의 전도를 받아 병상세례를 받고 그해 10월에 등록하였다.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늘푸른대학'에 등록하여 7년

째 교사성어반 반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조규민 집사(75세)는 2015년 봄 우연한 기회에 '늘푸른대학'에 입학하여 교회의 문턱을 넘은 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정식으로 등록하고 세례를 받았고 지금은 '늘푸른대학 찬양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배찬양준비팀이 제직부서로 정식 발족한 시기는 2018년 초이지만 이 두 분은 예배찬양준비팀이 조직되기 이전인 2016년부터 자원하여 3년여 동안 매 주일 보면대와 의자를 나르고 배치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다. 올해도 두 분은 "노년에 교회 사역을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며 힘든 사역도 마다하지 않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무거운 의자며 보면대를 열심히 나른다. 어찌보면 실제로 연주하는 것보다 덜 화려하고 허드렛일이지만, 그 일을 마다않고 1년 52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묵묵히 자기에게 맡긴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숨은 일꾼들을 기다리신다. **함글함글**

함글함글 공지 |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잘못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 또 다시 바로잡습니다

'성가대'가 맞을까, '찬양대'가 맞을까? 오랜 관습을 통해 잘못 써온 기독교 용어들, 2013년에 연재했던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에 대한 양코르 요청이 빗발쳐서 신년 특집으로 다시 연재를 시작합니다.

"기도 드렸습니다"가 맞을까, '기도 드립니다'가 맞을까? '성가대'가 맞을까 '찬양대'가 맞을까?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어느 쪽이 옳은지 명쾌한 설명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준으로 삼는 성경의 문체가 일상적이지 않은데다가, 교회 안팎에서 오랫동안 관습처럼 사용해진 용어들이어서 용어에 대한 논의 자체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2013년 6월 15일 <한국기독교공보>에는 "비 성서, 비 신학, 비 기독교적 낱말 고쳐야"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발전연구원에서 6월 3일 개최한 '한국교회 잘못된 예배용어, 이것만은 고치자'라는 주제로 열었던 연구발표회의 내용을 보도한 내용이었습니 다. 이미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 2001년과 2002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2004년에 교회 용어의 적절성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배학 교수, 국문학 교수, 아나운서, 목회자 등으로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관습적으로 쓰이는 문제적 용어 약 150개를 선정, 성서적인가, 신학적인가, 기독교적인가, 어법의 오류는 없는가 등을 검토하였으며, 72개 용어에 대해 '사용 불가'와 '변경'을 판정했습니다.

<함글함글>에서는 이 연구 결과가 주님의교회 교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아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발제문의 원문 게재를 허락 받았고, 내용을 발췌하여 2013년부터 연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재연재 요청이 빗발쳐서, 신년특집으로 다음호부터 다시 연재를 시작합니다. 교인 여러분의 열독을 권합니다.

함글함글

부임 인사 | 신입 교역자

새로 오신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가정을 신앙의 주체로 삼고, 유유청청에 역점을 두는 2019년을 맞아 주님의교회에 반가운 분들이 오시고, 새로 중책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새로 오신 교역자 열두 분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맞아 주세요.(전입 · 임명순)



이진명 교육전도사 / 청년부

청년들을 격려하며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교회에 부임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청년세대가 신앙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해 성장해 나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며 마음을 나누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 다음세대가 교회와 사회에서 예수님의 온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정호영 교육전도사 / 소년1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샬롬~! 2018년 12월 2일부로 소년 1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된 정호영입니다. 진리가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저도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교역자가 되겠습니다! 소년 1부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차세대의 리더가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김중희 전도사 / 청년부 전임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겠습니다

주님의교회 청년부를 섬기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희망이고 소망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광 전도사 / 청년부 준전임

제자의 삶을 살며 삶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꿈과 소망을 잃어가는 세대에 진정한 꿈이시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가며 나의 성공과 안락함을 쫓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공동체 되도록 저 자신부터 제자의 삶을 살며 삶으로 가르치고 섬기는 사역자 되겠습니다.



권순철 교육전도사 / 유년2부

주님이 일하실 때 방해되지 않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주님의 교회 유년 2부 전도사로 부임한 권순철 전도사입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귀한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제게 큰 감동이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인 만큼,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일하실 때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아닌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종성 목사 / 교구 부목사

늘 낮은 곳에서 섬기겠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더 성장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찬양의 달란트가 주님의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낮은 곳에서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준비된 목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백양선 교육전도사 / 어와나

서두르지 않고 한 단계씩 나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양선 전도사입니다. 올해 신설된 어와나트랙, 그리고 비전샘과 전국미자립교회수련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 성급히 서두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차분히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시영 목사 / 교구 부목사

함께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8교구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한시영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멀리까지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신앙의 주체가 가정임을 말씀과 삶을 통해 젊은이교구에 잘 전하겠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길을 향해 걸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고 함께만 있어도 힘이 되는 사람 되게 하소서.'



김오정 전도사/유아숲 준전임

모든 일에 성실하겠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에 기대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유아숲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동역자들과 한마음으로 즐겁게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며, 사람들에게 진실하며, 모든 일에 성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진 교육전도사/유치1,2부

오묘하고 섬세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들어 행하실 주님의 손길이 참으로 오묘하고 섬세하여 다른 해보다 더욱 기대되는 올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경순 목사/청소년숲 부목사

길 잃은 청소년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겠습니다

한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며 사랑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소유와 경쟁과 욕망을 통해 나 자신을 확인하도록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길 잃은 청소년을 위로하고 용기와 기운을 북돋아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교회와 가정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교회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유유청청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은미 전도사/유아숲 부목사대우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이끌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언제나 단순하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즐겁게 동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누리겠습니다.

목회칼럼

만나만나~, 유아숲~!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거하는
부모로부터 받은 따뜻하고도
일관된 사랑과 관심이
우리 아이들 신앙의 근본이 된다.



유아숲의 어린아이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머무르는 시간은 길면 2시간이다.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 2시간이 신앙 교육의 전부라면, 교회학교는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영유아기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의 바른 생활습관을 익히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바른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가정과 부모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이 부모로부터 일관된 신뢰감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은 없기 때문이다.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신앙이 확고하게 바로 서야 한다. 그렇게 확실한 믿음에 거하는 부모로부터 받은 따뜻하고도 일관된 사랑과 관심이 우리 아이들 신앙의 근본이 된다. 그러한 기초 위에서 부모와 교회학교는 함께 신앙교육을 하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예배자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

주님의교회 유아숲은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부모가 아이의 첫 신앙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가정연계 신앙교육 프로젝트〈유아숲 만나만나〉를 전 부서가 함께 진행하며, 아이들의 교육과 더불어 각 가정의 회복과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유아숲 만나만나〉가 바라보는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배운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고백하고 온몸을 사용하여 실천하는 훈련의 장이자 삶의 자리이다. 이를 위해 〈유아숲 만나만나〉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가정예배 프로그램인 〈만나송이〉는 아이와 온 가족이 일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은혜와 말씀 실천 내용을 점검표로 만들어 나누며,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친다.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생활습관을 길러주는 〈말씀사랑달력〉과 공동체가 함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만나모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실천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모든 과정은 매일 10여 분 남짓한 시간이면 가능하다.

부모를 통해 전수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가르침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자라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 10여 분의 시간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 모든 가정마다 각각의 상황은 다르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마음은 다 같을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의교회 유아숲도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아무쪼록 부모님들도 자녀와 가족을 위한 작은 축복의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은미 전도사 / 유아숲

큐티 시편 | 이사야 53장 3~6절

사포질

매끄러운 면을 만들고자
사포질을 하다가
우뚝 선 한 날에
찢려 한 방울 흘리다

나에겐 고작 한 방울이지만

누군가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쏟을 수밖에 없는
희생의 자리는

내 안에서 수없이 존재하는
일어날 가시,
그것 때문이라는 걸

다 깎을 순 없지만
사포질을 멈출 수 없는 건
여전히 사랑스런
살포시 앓은 당신 때문이란 걸.

김형일 전도사 / 소년2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3~6절

간증 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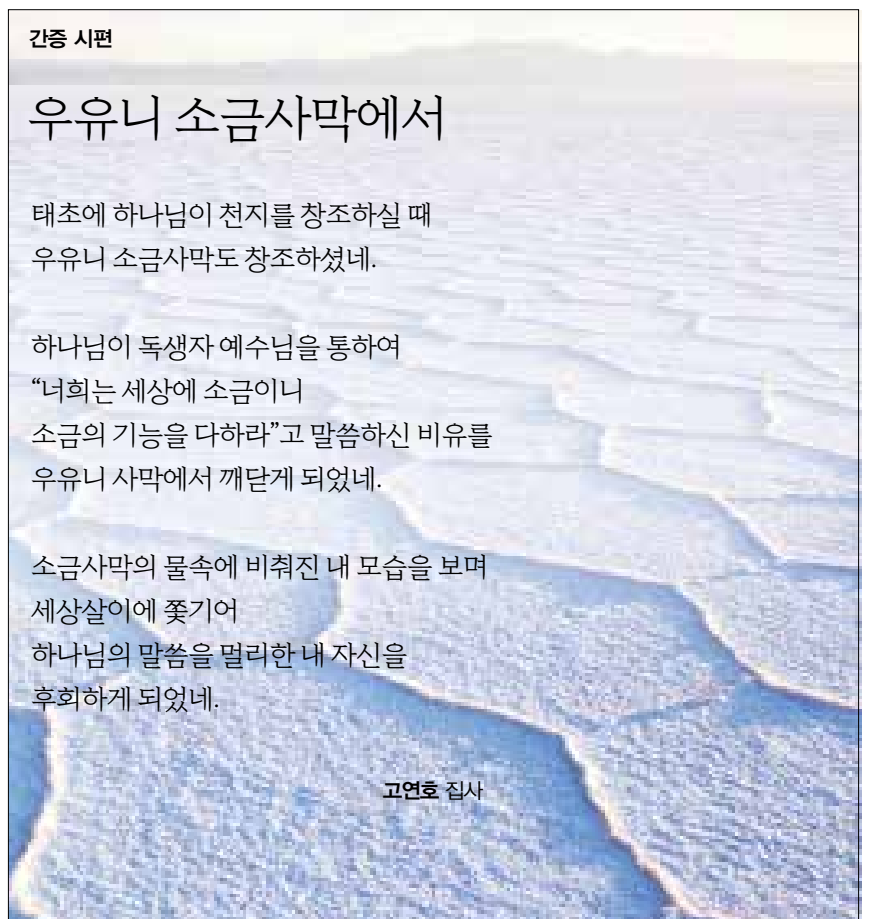
우유니 소금사막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유니 소금사막도 창조하셨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의 기능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비유를
우유니 사막에서 깨닫게 되었네.

소금사막의 물속에 비취진 내 모습을 보며
세상살이에 쫓기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내 자신을
후회하게 되었네.

고연호 집사



 아이들이
**이재영 아기**

2018년 1월 7일생

1. 하나님을 잘 믿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재영이가 되게 해주세요
2. 재영이와 온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3.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아빠 이창희 / 엄마 김고은, 2018년 12월 23일 3부 예배

**최지호 아기**

2018년 9월 28일생

1. 지호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길
2.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시기를
3. 주님께서 지혜 허락하시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기를

아빠 최규호 / 엄마 박중혜, 2018년 12월 30일 2부 예배

**윤주원 아기**

2018년 8월 27일생

1. 인생의 이른시기에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2. 하나님을 사랑하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길 축복해주세요.
3. 삶의 전 영역인 영적,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에서 강건하며 복을 누리게 축복해주세요

아빠 윤남태 / 엄마 김나현, 2018년 12월 30일 3부 예배

**현서희 아기**

2018년 9월 24일생

1. 영육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3. 감사의 삶, 긍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하소서.

아빠 현대권 / 엄마 오영재, 2019년 1월 13일 3부 예배

단소리 쓴소리**특별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어떤 교우님이 보내온 사연**

새벽기도 나갈 때마다 하늘을 봅니다. 몸이 아파 불편한 몸으로 특새에 참석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과 노약자 주차장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 겨우 주차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안 본다고, 바쁘다고 성도들 일부는 주차를 할 때 노약자와 장애인으로 변하나 봅니다. 예배와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몸도 마음도 함께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립니다
1. 교구연합수요기도회(주관: 1교구)

일시 : 2/13(수) 오후7:20~9:00 대예배실

▶ 기존의 교구연합 금요기도회가 올해부터는 교구연합 수요기도회로 변경됩니다.

2. 2019년 상반기 주님의교회 대내외 장학금 신청안내

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서류접수 : 1/27(주일)~2/13(수) 교회사무실(1층)

(월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 최명철 안수집사(010.6303.8267)

▶ 자세한 사항은 교회 내 광고포스터 및 홈페이지 참조

3.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2019년 1/9(수)부터

장소 : 교회 사무실(직접방문, 전화신청 불가)

홈페이지(온라인 사무실/온라인 기부금 납입증명서 이용)

▶ 교적 핸드폰 번호가 다른 경우 본인 인증이 안됩니다. 바뀌신 분은 변경 신청해주세요.

문의 : 경리간사(02.416.5181)

4. 늘푸른대학 제11기 입학(등록) 안내

대상 : 1950년 이전 출생하신 교인 및 지역주민 (주민등록증 지참 필수)

일시 : 2/12(화) 10시~14시 *선착순 270명

접수 : 중예배실(지하) 로비 / 등록금 : 8만원

개강일 : 3/5(화) 오전10:30 / 중예배실(지하)

문의 : 권성호 안수집사(010.3726.1444)

5. 아버지학교(강남60기) 지원자 모집

일시 : 2019년 1/13~2/17(5주간) 매주일 오후4시

장소 : 소년부실(3층) 회비: 12만원(1층 로비등록)

문의 : 김명훈 안수집사(010.5285.6032)

6. 청소년분과 멘토 모집 (재능기부: 특강, 1:1만남, 소그룹 만남 등)

교회와 정신학원 청소년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7. 유영청청 교사 모집**담쟁이 유치부**(6~7세)

모집분야 : 유치1부 운동교사 1명, 유치2부 담임교사 1명

문의 : 이수진 전도사(010.2735.2983)

햇살뜨락 초등1부(초3,4학년)

문의 : 황원석 전도사(010.6417.3508)

아름드리 소년1부(초5,6학년)

문의 : 정호영 전도사(010.3096.8932)

팝콘트리 중등부

문의 : 왕상현 목사(010.9621.2196)

8. 어와나 신인단원 및 교사 모집

모집부서 : 커비(5~6세), 불티(7~9세), 트랙(14~16세)

문의 : 권효정 전도사(커비, 불티 / 010.9208.2746)

백양선 전도사(트랙 / 010.2323.5553)

9. 휴무 및 방학 안내

▶ 수요일 어린이 영어예배: 방학(1월 한달간)

▶ 주방 : 2/3(주일) 설 명절 관계로 쉽니다.

▶ 전화상담실 : 12/31(월)~2019년 2/1(금)

▶ 설만찬물가 : 12/31(월)~2019년 2/6(수)

▶ 도서부 : 2019년 2/8(금)까지 (주일은 정상운영)

늘푸른 대학

제 11기 학생모집

- 대 상 : 1950년 이전출생자 / 교인 및 지역주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 회 : 270명 (선착순)
- 등록일시 : 2019. 2. 12(화) 10:00~14:00
*2/12 하루만 등록을 받습니다
- 등록장소 : 주님의교회 / 지하1층 중예배실 로비
- 등록금 : 8만 원(1년)

**개강 : 2019. 3. 5 (화)**

오전 10:30 / 중예배실

특별활동 반

(15명 반)

▶ 한영대 반

▶ 고사영계 반

▶ 노혜교실 반

▶ 조경실 반

▶ 박인영 반

▶ 박지영 반

▶ 박영희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 박정현 반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